

담배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의견이 좋은지 나쁜지는 개인의 생각법의 차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할수없습니다.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피우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담배는 사람의 기호품이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서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담배를 피우는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눈감는것은 안됩니다. 좋아하는 담배를 피우면서 규제를 받는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면, 담배연기속에서 있는 다른 사람들도 쾌적한 환경에 있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백해무익으로 담배를 피울 때 자신보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규제로서 단속을 하기보다 스스로 자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강하게 한다면 반발심도 크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흡연자는 상대를 생각하면서 적당한 장소에서 흡연해야합니다. 공공의 장소에서는 가능한 절제를 하고, 흡연이 가능한 곳에서 피우는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정도에서 한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우는 사람이 조금 주의를 기울인다면 비흡연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않고 좋아하는 담배도 편안한 마음으로 피울수 있습니다.

담배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어려운것이기 때문에, 흡연자의 주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선에서 금연의 장소도 지키면서 피우는 것이 흡연자의 자세인것입니다. 서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보다 타인의 일을 먼저 배려해야 합니다. 담배도 역시 이러한 문제인 것입니다.